

**Boris Mironov, *The Standard of Living and
Revolutions in Russia, 1700-1917*,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2**

최재동*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이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당시 러시아는 전체인구 중 농민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 농민국가였다. 혁명 직후의 1920년대부터 시작되는 전통적 소비에트 역사학은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규명하고 선전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주요한 패러다임에 따르면 러시아 농민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농민의 빈곤화는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화되었으며 결국에는 사회주의혁명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러시아 농민의 생활수준이 18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농노해방 이후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기존의 학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리비저니스트(Revisionist)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사료를 재검토 또는 재해석하여 토지규모의 양적 확대와 토지생산성의 상승, 세금부담의 저하, 농업외 수입의 증가 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 이들은 농민의 소비와 식생활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사망율의 저하를 통한 급속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농민운동론' '농민혁명론'의 주요한 근거가 된 '농민빈곤화론'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Choi, Jaedong,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Keio University).

제정러시아 농촌사회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보리스 미로노프(Boris Mironov)의 최근에 출간된 『러시아의 생활수준과 혁명, 1700-1917(The Standard of Living and Revolutions in Russia, 1700-1917)』은 이러한 리버저니스트적 관점을 집대성한 대작이다. 먼저 이 저작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로노프 저작의 최대 특징은 연구의 출발점이 전통적인 연구테마인 토지, 농민공동체, 농업 등이 아니라 러시아 농민의 신장과 체중 즉 생리학적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평균 신장의 감소 또는 정체를 보였던 18세기와는 달리 농노해방 이전의 19세기 전반부터 러시아인의 신장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162.2cm로부터 165.0cm로 2.8cm 늘어나고, 특히 1860년대의 농노해방부터 제1차세계대전 직전까지의 반세기 동안 신장은 164.5cm에서 169.0cm까지 4.5cm나 증가를 보였으며 18세기말과 비교하면 8.6cm나 증가를 보였다. 체중 면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 19세기 초 1811-15년의 58kg에서 1911-15년에는 65kg로 7kg의 증가를 보였다. 이것이야말로 19세기, 20세기 초 러시아가 18세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수준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이다.

둘째, 미로노프의 연구대상은 농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주, 상인, 관리, 도시민 등의 신장과 생활수준도 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평균 신장의 변화에서 보면, 1791-1800년부터 1900-17년까지의 기간에 농민의 신장은 8.6cm 늘어난 데 비해 지주, 상인, 관리 등의 상류계층의 신장은 3.3cm 밖에 늘지 않았다. 소비수준에서 보더라도 농민외 계층은 농민의 그것보다는 좋았지만 그 차이는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결과 신장이나 체중 면에서 농민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그 증가도가 농민보다도 낮았다.

셋째, 미로노프의 저작은 생산, 소득, 소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의 농민생활수준에 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먼저, 토지생산성과 곡물수확에 대해서 중앙통계청, 농업성, 지방자치기관인 젤스트보 등의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축소 조사되었는데, 이를 수정 보완하면 1801년부터 1913년까지 곡물수확량은 러시아 인구의 필요 소비수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대부분의 농민은 농노해방 과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토지를 부여 받았다.

넷째, 농민의 수입과 소득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생활수준 향상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먼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농민빈곤화의 주요 원인으로 주

목해왔던 토지상각대금은 농민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 토지상각 계약 가격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았고 토지상각대금의 감면조치로 그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게다가 토지가격과 농산물가격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하면 실제적 부담은 크지 않았다. 또한 무엇보다 이 대금은 일반 세금과 동일시해 온 기존의 연구시점과 달리 농민에게 재산증식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나아가 농민의 납세부담도 농노해방 후 여러 번 감면조치가 취해져 크게 줄었다. 1850년대 러시아 농민의 제세금지불의 부담은 소득의 38.6%를 차지했는데 1900-1에는 22.5%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1907년부터 토지상각대금의 지불이 폐지되어 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불부담액은 5% 정도 더 감소되어, 1907년 이후의 부담율은 17.5%로 저하되었다. 소득변수에 농민의 농업외 소득까지 고려하면 세금 부담율은 더 저하되어 10% 전후가 된다. 이러한 농민의 부담액은 농민외 도시주민의 부담과 비교해서 10배 가까이 가벼운 것이었다.

다섯째, 농민의 소비수준을 보면 도시주민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최하층 그룹이라 할지라도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생리적 필요와 생존을 위한 필요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농노해방이후 러시아 농민의 소비수준은 양과 질의 면에서 지속적인 향상을 보였다.

여섯째, 농노해방 후 사망률이 저하된 반면에 출생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인구압에 의한 맬더스 위기에 러시아는 직면하지 않았다.

일곱째, 19세기, 20세기 초의 농민 신장의 급속한 증가는 의료와 위생발전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 러시아 농촌사회에 의료서비스와 위생조건의 개선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이후의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미로노프는 방대한 자료의 재검토와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종래의 농민빈곤화와 농민혁명론에 근거한 기존의 연구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도전적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미로노프는 맬더스의 인구론적 관점, 즉 인구증가와 식량증산과의 모순적 관계를 적용하며, 러시아는 농노해방 후의 급속한 인구증가를 능가하는 식량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맬더스의 트랩을 벗어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맬더스적 관점에서 러시아혁명의 발발원인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맬더스의 인구론은 원래부터 어떤 특정한 시점의 혁명이나 사회변동현상을 설

명하기 위한 이론은 아니다. 또한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 전시공산주의 하의 1920-22년의 대기근, 또 집단화 시기의 1931-32년의 대기근, 즉 멜더스의 ‘적극적 억제’를 통해 러시아는 수천만 명의 인구를 소실했다. 즉 멜더스적 관점에서 보면 농노해방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반세기 동안 급속도로 증가한 인구는 전쟁과 두 차례의 기근을 통해 생산력 수준에 상응하는 인구 규모로 축소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미로노프의 러시아혁명의 원인에 대한 근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분출의 형태와 결과가 다른 나라와 다를 뿐이라는 설명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미로노프는 러시아 농민문제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의 또 다른 대작으로 『제정러시아의 사회사, 1700-1917(Социальн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период империи, XVIII – начало XX в., Т. 1, 2, 1999)』이 있다. 이전의 사회사 저작에서 방대한 연구사의 치밀한 정리를 바탕으로 논의된 동일한 시기의 러시아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전개된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번 대작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또 러시아혁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대화가 아쉽게도 이번 저작에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로노프의 저작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 저작은 기존 연구가 전제로 하고 있던 많은 자료와 견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여 현재 러시아 역사학계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쟁이 러시아사 연구의 활성화와 일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